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신소재공학부	학 번	201**163	성 명	정보경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에나응용과학대학교	파견학기	2015년 1,2학기
소요경비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약 1500만원 들었습니다.				
주거	학생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살았고, 다음 학기는 Privat room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 연장을 하신다면 학생 기숙사에서 1년 동안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거환경을 접해보고자 Privat room을 구해서 생활했었습니다.				
룸메이트	학생 기숙사 기준으로, 독일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와 함께 주방, 욕실을 쉼어하며 지냈습니다. 남,여 기숙사가 구분되어 있진 않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저희 기숙사에는 한국에서 예나로 파견된 교환학생이 저 뿐이었기 때문에 혼자였습니다. 다른 기숙사에는 한국인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영어로 이루어져 있는 학과는 석사과정인 Scientific Instrumentation뿐이며, 기계, 물리, 전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교환학생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Schäf, Robert씨 입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며, 전공 수업 선택에 관해서도 많이 여쭙보았고, 교환학생 연장 또한 이분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주말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공원에서 피크닉, 바베큐를 하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저는 한국인 튜터 분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독일에 도착하기 전에 학교에서 미리 튜터를 정해주며, 보험, 비자, 은행개좌 개설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생활 전반에 대해 궁금한 것도 튜터에게 많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전공	Master과정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부과정보다 심화된 내용을 공부 하실 수 있으며, 최신식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은 기계, 전자, 반도체 전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업 스케줄	2015학년 1학기에는 전공2개(Thin film, M&N str.)와 독일어를 들었었고, 2015학년 2학기에는 어학공부를 하고자 독일어 수업만 들었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학교 등록비(약 20만원)를 내면 THOSKA라는 학생증이 발급됩니다. 이 학생증 소지 시, 예나 도시 내에서 트램, 버스 교통비가 무료이며, 또한 튀링겐 주 내에서 RE기차도 무료입니다. 어학원 등록 시에도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IC카드 활용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학생증(THOSKA)으로도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공부	영어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외국학생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화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독일이지만, 예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교환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행	공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여행을 다녔습니다. 특히 방학은 한국과 비슷하게 2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활용하여 여행하시면 좋습니다.
교통	예나 내 교통은 잘 되어있습니다. 도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걸어 다니셔도 좋습니다.
날씨	한국보다 봄이 늦게 오는 편이고, 독일답게 하늘이 회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날 때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인턴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신	앞서 말했듯이 예나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학생들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영어와 독일어 실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점	-